

#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 Parental Beliefs about Parent-Child Interaction

이 희 선\*

Lee, Hee S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ternal beliefs concerning communication strategies toward children in a variety of situations and to examine related factors. The subjects were 145 mothers of 4-5 year old children. A Communication Strategy Questionnaire composed of 12 vignettes was designed to assess parental beliefs about parent-child interactions. The data were analyzed by F-test and t-test. Findings indicated that mothers preferred rational authorita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conflict situations. Also, mothers communication indicated level of child-centered orientation and goals for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몇십년 동안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관한 요인들을 중점으로 다루어 아동발달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Sameroff(1975)는 아동발달에 관련된 부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

동과 같은 표면적인 특징 보다는 아동양육시 드러나는 태도나 행동의 근저에 깔려있는 신념이나 사고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부모가 아동이나 아동양육에 관해 지닌 신념이나 사고는 아동양육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어 결국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에서는 사회인지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부모가 아동이나 아동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며 이러한 인지는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Goodnow, 1988; McGillicuddy-

---

\* 경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DeLiSi 1982; Sigel et al, 1980; Jahnson & Martin, 1983). Parke(1983)는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신생아의 인지적 능력을 탐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동발달에 대해 지닌 인지적 능력도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부모가 아동발달이나 아동양육에 관하여 지닌 모든 인지적 능력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것을 시사해준다. Miller(1988)는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모든 사고를 부모신념(parental beliefs)이라고 명명하였다.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부모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아동양육에서 발생하는 여러상황들을 능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그들의 양육행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해나간다는 것이다(Sigel, 1985; Miller,1988; Goodnow, 1988).

McGillicuddy-De Lisi(198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닌 아동의 인지발달에 관한 신념이 교수행동 보다 아동의 표상력 발달에 더 많은 관련성을 갖는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념은 연구상황에서 쉽게 관찰되는것은 아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누적된 상호작용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며 아동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묘하게(subtle) 전달된다. 예를들면 놀이감 종류의 선택이나 아동의 탐색활동을 허용하는 공간의 면적과 자유시간의 정도 및 주거지역의 선정 등은 부모의 신념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은 양육행동을 유도하고 이는 아동의 수행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Sigel과 McGillicuddy-De Lisi(1984)는 부모가 지닌 발달에 대한 신념에 따라 아동과의 상호작용 유형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지식의 발달에서 아동을 능동적인 구성자로 인식하는 부모들은 아동을 직접 지시하여 가르치는것 보다 아동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 질문을 하여 그들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미래의 행동을 계획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반면에 아동을 지식의 발달에서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부모들은 직접 지시하여 교수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연구를 살펴보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동이 지닌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적 및 자기 지각 능력간의 상관관계 연구(전경숙,1992)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발달하길 기대하는 특정 능력에 대한 신념(김경혜, 1993)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유아들 둔 부모들이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지닌 아동발달 신념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지닌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신념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일상적인 갈등상황에서 그들의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봄으로써 부모의 신념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언어상호작용 유형은 어떠한가?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2.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어머니가 지닌 아동발달에 대한 신념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신념

신념(belief)이란 여러문헌에서 “도식(schemes)”, “인지(cognition)”, “개념(conceptions)”, “사상(ideas)”, “귀인(attribution)”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상술할 수 없는 용어이다(Sigel, 1985; Miller, 1988). Sigel(1985)은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을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hat)과 방법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how)이 통합된 실재의 구성(construction of reality)으로서, 경험적인 입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 믿음(truth)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부모의 신념은 불변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경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개방된 체계(system)로서 인식하였다. Miller(1988)는 부모의 신념을 아동과 아동양육에 관한 가치(values)나 목표(goals)를 제외한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모든 사고라고 하였으며 이는 곧 아동양육 상황에서 드러나는 “실재에 대한 개념(conception of reality)”이라고 지적하였다. 부모의 신념은 아동양육행동을 이끌며 이는 아동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신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직관을 수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Sigel, 1985).

McGillicuddy-De Lisi(1985)는 부모의 신념, 실제 양육행동, 아동의 수행능력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결과 신념은 두가지 방식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신념은 부모행동의 근원이며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과 아동행동의 결과간을 조정하는 중개요인(mediating factor)으로 작용하므로 신념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둘째로 부모의 신념은 아동행동의 결과를 직접 예측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부모의 어떠한 신념이 구체적 양육행동으로 전이되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지적으로 우수하며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특성을 가진 아동이 지적 능력이 있는 아동이며 자녀들이 학교의 집단 생활에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인지 어떠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발달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신념이 다르다. 따라서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양육방향이 달라지며 그 결과 아동발달의 결과도 달라진다(전경숙, 1992).

Newberger(1980)는 전통적인 인지구조에 기초하여 부모 신념의 근거가 되는 아동과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추론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의 신념수준을 네단계의 사고수준으로 구분하였고, 각 단계는 질적으로 다른 사고수준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부모의 신념에서 제 1단계는 부모 중심적인(egoistic or self)수준으로 자녀를 부모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인식하고 자녀양육을 부모의 관심이나 요구(needs)에 맞추어 해내려는 부모의 사고수준을 의미한다. 제 2단계의 부모의 사고수준은 아동양육에 있어서 모든 관점은 부모중심적 수준에서 인습적 또는 규범중심적(conventional or norm orientation)단계로 발달한다. 비록 부모중심적인 사고의 정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동양육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나 규범에 근거하여 부모역할의 관점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부모들이 지닌 신념들은 주로 문화에 속해져 있는 전통적 권위에 근거를 둔 관습적 지혜(conventional wisdom)에서 유도된 것이다. 부모가 인식하는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인 부모 역할 관점으로 이해된 것이고 보편적인 사회 인습적 수준에 근거한 것이다. 제 3단계는 아동 중심적(individualistic or child orientation)수준으로 부모는 아동을 독특한 개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경험이나 행동을 이해한다.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역할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교환적(mutual exchange)인 관계로 발달한다. 제 4단계는 과정 또는 체계 중심적인(process or system orientation)수준으로 부모는 앞의 세단계의 관점을 모두 이해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복잡한 상호체계(complex dyadic system)로 받아들인다. 아동과 부모에 대한 관점은 복잡하게 변화해나가는 개방적인 심리적 자아체계로 인식하였다. Newberger(1980)는 네단계의 부모의 신념수준은 위계적으로 점차 높은 단계로 발달할 수록 아동발달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통합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되고 자녀양육의 실제에서 융통성이 증가되는것으로 보았다. 즉 부모의 신념은 부모의 사고수준이 단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관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발달해나간다고 지적하였다. 비록 부모의 신념에 관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Newberg의 아동양육에 관한 부모의 신념수준 발달단계 가설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지만 아동과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사고수준을 발달단계 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 2. 부모의 신념과 아동발달

최근 부모의 신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을 유도하며 이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때문이다. Sigel, McGillicuddy- DeLisi와 Johnson(1980)의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이 가정의 맥락내에서 부모의 교수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표상력 발달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부모의 교수행동 보다는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부모의 신념은 실험연구상황에서 쉽게 관찰되어지지 않지만 아동 발달결과를 직접 설명해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 강조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부모가 아동을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로 인식할 때 인지적 표상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양육방법인 간격행동전략(distancing behavior strategies)-개인과 진행중인 환경간에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교수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Sigel, et al(1980)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의 신념은 아동 양육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외동이를 갖은 부모들은 아동은 직접적인 교수법이나 지도에 의해서 발달해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고, 반면에 세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은 스스로 자율적(self-regulatory)으로 발달해 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흥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Miller(1988)는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고찰한 연구들에서 네가지의 주요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모들이 지닌 아동발달에 관한 신념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둘

제 아동발달에 관한 부모신념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세계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에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으며 네째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아동이 최적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는 부모의 신념이 아동의 인지발달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변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신념에 관한 연구를 두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범주는 발달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체계이다. 아동의 능력은 어느정도가 선천적이며 어느정도가 경험으로부터 학습되는가? 아동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가 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발달을 주도해나가는가? 아동의 특정발달에 관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발달한 아동의 능력은 영속적인가 또는 성장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가? 이러한 견해들은 발달심리학에서 다루어온 고전적 주제들로서 주로 아동발달의 본질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관한 내용을 밝혀준다. 두번째 범주는 아동의 특정능력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주로 발달 시기에 관한 신념의 연구들이다. 예를들면 신생아, 3세, 8세 아동의 인지능력과 한계성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맥락, 부모의 신념, 아동의 수행능력에 관한 Kohn(197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부의 권위에 대한 순응에 가치를 두고 부모들은 아동에게 복종과 훌륭한 태도를 강조하는 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기 지시를 암시하는 특성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oodnow(1985)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고 자녀의 수가 많은 부모들은 통제를 강화하며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급자족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아동의 바람직한 특성들은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들은 변화하기를 기대하였다.

Bronfenbrenner(1979)은 부모의 교육수준은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피아제 방식의 아동'을 강조하는 심리학의 흐름을 잘 인식하여 아동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관찰되는 사건과 상황으로 부터 문제해결을 추론하도록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과거를 현재상황에 결합시키고 미래를 예견함으로써 지식을 재구성하는 개방적인 질문을 많이하며 간격을 두고 언어상호작용하는 유형을 더 선호한다고 지적하였다. Sameroff와Feil(1985)는 범주적(categorical)-조망적(perspectivistic)차원에서 부모의 신념을 구분할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낮은 부모들 보다 조망적 차원에서의 부모의 신념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상호호혜적 관계로 파악하고 아동과 아동양육에 대한 관점을 복잡하게 변화하는 융통적인 체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Johnson과 Martin(1985)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발달론적인 관점의 부모신념은 아동의 읽기와 수학능력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반면에 성숙론적 관점의 부모신념은 아동의 성취력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Sigel(1972)은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상력 발달증진을 위한 간격전략 가설(distancing strategies hypothesis)을 사용하였다. 간격전략이란 아동의 표상적 사고발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상황에서 유아들에게 경험을 표상하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질문기법이다. Piaget와

Bruner에 의하면 표상력은 전조작기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지식을 조직해나가는 방법과 관련된 능력이다. 인지 발달에서 표상력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한 Sigel, McGillicuddy-DeLisi와 Johnson(1980)은 표상력은 성숙에 의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Sigel(1972)은 표상능력은 아동의 인지 발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아동의 표상능력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물리적인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물 또는 상황등을 정신적인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며, 둘째 과거를 회상하여 현재에 연결시킬 수 있고, 현재를 미래와 연관시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며, 셋째 위의 두가지 능력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하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아동의 표상능력 발달을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시 간격행동 교수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간격행동(distancing behavior)이란 아동에게 과거의 사건, 사물 또는 상황을 정신적으로 재구성하게 하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 사건등을 통하여 미래를

예견하고, 다음에 할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맥락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상황 등을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 행동을 뜻한다. 즉 부모와 아동 상호작용시 심리적인 간격을 두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상황을 아동이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과거를 회상시키거나 다가올 미래를 예견할 수 있도록 제안이나 개방적 질문형과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유형을 의미한다. Sigel(1981)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이 있을 때 자녀의 인지적 표상수준을 신장시키는 아동양육 방법을 채택하며, 자녀에 대해 수동적 존재라는 신념이 있을 때 자녀의 표상능력을 자극하는 양육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상호작용유형을 간격행동전략에 따라 조사해보고, 언어상호작용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해봄으로써 부모들이 아동양육에 지닌 신념을 알아보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표 1〉대상 어머니의 일반적 특징

연령	명(%)	교육수준	명(%)	총자녀수	명(%)	출생순위	명(%)
25-29	29(20)	중졸이하	4(3)	1	32(22)	첫째	85(59)
30-34	78(54)	고졸	72(50)	2	99(68)	둘째	53(37)
35-40	33(23)	대졸	67(46)	3	12(8)	셋째	6(4)
40이상	5(3)	대학원졸	3(2)	4	2(2)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과천시에 소재한 3개 유치원의 유아반에 다니는 만 4, 5세 아동을 둔 어머니들로서 각 유치원별로 60명의 유아를 선정

하여 총 18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거나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남아를 둔 어머니 82명, 여아를 둔

어머니 63명 총 145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을 만 4세-5세 사이의 유아의 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Piaget의 발달단계에서 전 조작기에 있는 아동의 인지발달에서 표상력이 특히 주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994년 6월 27일부터 2주간 유치원의 유아반 아동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가 응답하게 한후 아동을 통해 회수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Sigel, McGillicuddy와 Johnson이 1980년에 제작한 의사소통전략 질문지(Communication Strategy Questionnaire)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일상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12가지의 가설적 문제상황에서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어떻게 반응하며 그렇게 반응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가 발달에 대해 지닌 신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선호하는 언어 상호작용유형을 알아보고, 왜 그러한 언어적 반응을 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자유응답하여 기술하게 하였다. 즉 12가지의 일상적인 문제상황에서 간격전략에 따라 어머니들이 아동에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4가지 반응중에서 선택하게 하였고, 왜 그러한 반응을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도구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5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이 질문지에서 사용한 12가지의 문제상황은 3가지 하위영역 상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영역에는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로 격려하는 긍정적 상황과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의 행동을 수정해야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반씩 포함되어 있으며 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물리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상황(Teaching physical facts & principle)

상황 6:목욕중에 쇠 숟가락이 물에 가라앉는 여부를 가르치는 상황

상황 9:블럭을 높이 쌓는데 자꾸 무너져 내리자 이유를 엄마에게 묻는 상황

상황 10:TV만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인 것으로 여기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상황

상황 5:창문에 트리가 반사되어 비추어지는 것을 보자 똑같은 트리가 밖에 있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상황

B. 사회적 규범과 기술을 증진시키는 상황(Promoting social skills & norms)

상황 3: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놀이하다가 장남감을 혼자서만 갖고 놀려고 하는 상황

상황 4:엄마가 바쁜 일을 하는 중에 함께 놀아달라고 아동이 조르는 상황

상황 8: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황

상황 12:다른 친구 가족과 동물원에 놀러가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엄마는 못가고 아동만 보내려 하는 상황.

C. 행동지도 상황(Behavior management)

상황 1:블럭이 잘 맞지 않자 방에 던지는 상황

상황 2:엄마와 함께 외출하려는데 아동이 외출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상황 7:저녁 식사전에 케익과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상황.

상황 11: 혼자서 나가볼 수 없는데 고집 피우면서 나가려는 상황.

12가지의 가설적 문제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언어상호작용 반응을 분석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간격반응(Distancing response)-문제 해결 상황에서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능동적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황을 표상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반응. (“불력을 함께 갖고 놀지 않는다면 놀러온 친구가 어떻겠니?”)

B. 합리적 권위반응(Rational authoritative response)-상황에서 아동에게 합리적인 이유로 어떤 사실이나 규칙 정보 등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반응. (“순가락은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물에 뜰 수 없단다.”)

C. 지시적 권위반응(Direct authoritative response)-이유나 설명 없이 문제해결 방안을 직접 아동에게 지시하는 반응. (“순가락은 바닥에 가라앉는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니”)

D. 전환반응(Diverting response)-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 하기위해 다른 곳으로 아동의 주위를 전환시키는 반응. (“순가락이 없으니 다른 장난감이나 갖고 놀아라”, “나도 유리에 트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 자 이제 트리를 장식해 볼까?”)

E. 부모중심수준(Parent-centered orientation)-문제상황에서 부모의 요구나 관심에 초점을 두고 부모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아이에게 다른 장난감을 주어 조용히 하게 하는게 낫다.”)

F. 아동중심수준(Child-centered orientation)-문제상황에서 아동의 요구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아이가 원하지 않기때문에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G. 부모역할중심(Parent role-centered orientation)-문제상황에서 부모는 그 자신을 교사나 사회화 담당자, 또는 아동의 정서적 지지자로 인식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수행하려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H. 인지적 발달:문제상황에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목적을 두고서 가르치고자 하는 반응. (“아이는 쇠 숟가락은 물에 가라앉고, 나무는 물에 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I. 사회·정서적 발달:문제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반응. (“아이가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때문에”, “아이가 예의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 3. 자료분석

각 상황에서 측정된 언어상호작용유형, 부모의 신념수준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목적에 관한 빈도수는 한 개인의 각 항목의 빈도수를 전체 빈도수에 대한 상대 빈도수로 변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F검증과 t검증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어머니가 선호하는 아동상호작용유형

어머니들이 각 하위영역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각 하위영역 상황마다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상호작용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지적 과제를 교수하는 상황에서는 합리적 권위의 상호작용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격반응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규범을 가르치려는 상황과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권위형태의 언어 상호작용을 가장 선호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이 각 하위영역 상호작용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상호작용유형은 지시적인 권위를 띤 상호작용이었으며, 이어서 간격반응과 전환반응이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합리적

인 권위의 반응으로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와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하위영역상황별 분석결과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 상호작용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하위영역 상황에서 선호하는 상호작용 유형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상황에 따른 언어상호작용 유형의 검증

	간격반응 M(SD)	합리적 권위 M(SD)	지시적 권위 M(SD)	전 환 M(SD)	F
인지적 관제	.19(.11)	.46(.23)	.23(.10)	.12(.06)	32.72**
사회적 규범	.16(.09)	.38(.12)	.27(.10)	.19(.07)	16.23**
행동 지도	.22(.10)	.34(.16)	.27(.13)	.16(.08)	5.31*

df=3 \*\* P<.001 \*P<.01

〈표 3〉 교육수준에 따른 상황별 언어상호작용유형

	학 력	간격반응 M(SD)	합리적 권위 M(SD)	지시적 권위 M(SD)	전 환 M(SD)	t
인지적 과제	고졸이하	.16(.09)	.44(.19)	.27(.12)	.13(.07)	3.89*
	고졸이상	.23(.07)	.48(.24)	.18(.11)	.10(.05)	
사회적 규범	고졸이하	.13(.15)	.37(.15)	.31(.13)	.18(.09)	6.21*
	고졸이상	.18(.09)	.40(.17)	.21(.09)	.20(.07)	
행 동 지 도	고졸이하	.20(.10)	.32(.14)	.29(.14)	.18(.11)	7.09*
	고졸이상	.25(.09))	.35(.16)	.26(.11)	.13(.09)	

\*P<.01

〈표 3〉에 의하면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고졸이하 어머니와 고졸이상 어머니의 간격반응 점수는 각각 평균 0.16(SD=.09), 0.23(SD=.07)이었다. 이것을 t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89,p<.01).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인지적인 과제를 가

르치는 상황에서 아동에게 개방적 질문을 통한 간격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학력에 따른 지시적 권위반응의 점수를 보면 각각 평균 0.27(SD=0.12), 0.18(SD=0.11)이었다. 이것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21,P

<.01). 즉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인지적 과제를 교수하는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 보다 지시적 권위의 상호작용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인 규범을 증진시키는 상황에서 지시적 권위반응의 점수를 보면 각각 평균 0.31(SD=0.13), 0.22(SD=0.09)이었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7.09, P<.01$ ). 즉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 보다 아동에게 사회

적 규범을 증진시키는 상황에서 지시적인 권위의 상호작용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2. 상호작용에서 지닌 부모의 신념수준

어머니들이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지닌 각 하위영역 상황별 부모의 신념수준을 나타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상황에 따른 부모의 신념 수준의 차이 검증

	부모중심	아동중심	부모의 역할중심	F
인지적 과제	.14(.08)	.48(.22)	.38(.16)	42.98***
사회적 규범	.22(.06)	.41(.16)	.37(.14).36(.09)	7.93**
행동지도	.13(.14)	.40(.13)		17.63***

df=2 \*\*\*P<.001 \*\* P<.01

<표 5> 교육수준에 따른 상황별 부모의 신념수준의 차이 검증

	학 력	부모중심		아동중심		부모의 역할중심	
		M(SD)	t	M(SD)	t	M(SD)	
인지적 과제	고졸이하	.21(.05)		.43(.13)		.35(.17)	
	고졸이상	.07(.06)	5.28*	.52(.16)	3.74	.41(.15)	
사회적 규범	고졸이하	.26(.09)		.39(.11)		.35(.09)	
	고졸이상	.19(.07)	2.23	.43(.17)	2.01	.38(.13)	
행동지도	고졸이하	.16(.05)		.39(.13)		.34(.16)	
	고졸이상	.10(.06)	1.97	.41(.11)	1.21	.39(.14)	

P<.05

<표 4>에 의하면 각 하위영역 상황마다 부모들이 지닌 신념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언어 상호작용에 대해 어머니들이 지닌 신념수준을 보면 아동중심 수준을 가장 많이 지녔고 부모역할 중심 수준이 다음이었다. 사회적 규범을 증진시키는 상황과 아동 행동을 지도하는 상황에서도 역

시 아동중심 수준의 신념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부모역할 중심수준과 부모중심수준 순서로 부모의 신념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아동중심적 신념수준을 지니고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해결하였다. 아동의 성별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지닌 아동 상호작용에 관한 신념 수준에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신념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부모중심의 반응점수를 보면 각각 평균 0.21(SD=0.05), 0.07(SD=0.06)이었으며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t=5.28, P<.01$ ). 즉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 보다 언어상호작용시 부모중심 수준의 신념 수준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또한 아동중심의 반응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3.74, P<.05$ )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낮은 부모들에 비해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아동중심의 부모신념 수준을 더 많이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상황별로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지닌 아동발달에 대한 목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상황에 따른 언어상호작용의 목적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t
	M(SD)	M(SD)	
인지적 과제	.73(.28)	.27(.19)	43.27***
사회 규범	.61(.24)	.39(.20)	28.61***
행동지도	.58(.32)	.42(.16)	6.79**

\*\*\* $P<.001$  \*\*  $P<.01$

〈표 6〉에 의하면 각 하위영역 상황마다 어머니들이 지닌 언어상호작용의 목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지적인 과제를 가르치는 상황, 사회적 규범을 증진시키는 상황과 문제행동지도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목적을 두고 상호작용을 유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문제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언어상호작용의 유형은 어떠한가,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어머니들이 지닌 아동발달에 대한 목적과 신념의 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언어상호작용 유형은 Sigel의 표상력 발달을 위한 간격전략에 따른 교수법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선호하는 상호작용유형과 부모들이 지닌 신념수준과 목적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은 일상생활의 문제상황에서 주로 합리적인 권위형태의 언어상호작용을 많이 사용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에게 합리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순가락은 쇠로 만들어져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다).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려할 때 아동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표상하여 지식을 재구성하게끔 하는 간격행동 교수법 보다는 합리적 사실이나 규칙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 보다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려할 때 간격전략에 따른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개방적 질문이나 제안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Sigel et al.(1980)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아동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나갈 수 있는 능동적 주제

자로 인식하고 간격전략 교수법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인지발달에 있어서 아동을 수동적인 수명자로 여기고 상호작용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지식구성에 있어서 능동성을 강조하는 ‘피아제 방식 아동’ 이론을 잘 인식하고 있어 부모의 신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을 지식을 구성하는데 수동적인 수명자가 아닌 능동적인 구성자로 인식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관찰되는 환경과 사건으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상하여 현재상황과 연결시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높은 어머니들보다 아동에게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증진시키는 상황에서 지시적인 권위의 상호작용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칠 때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행동을 지도하기 보다는 지시적 권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들이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지닌 아동발달신념 수준은 인지발달에 목적을 둔 아동중심 수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들은 아동과의 언어상호작용시 문제 해결방안을 아동이 지닌 요구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아동의 인지발달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역할 중심이나 부모중심의 신념수준은 결국 성인중심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어머니들이 언어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에게 달성시키고자 하

는 목적은 주로 아동의 인지발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일상적인 문제 갈등상황에서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동의 인지발달에 초점을 두고 언어상호작용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가르친다’, ‘배우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등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여 언어상호작용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아동이나 아동양육에 대해 지닌 신념수준은 대체로 성인중심의 인지발달을 강조하는 유형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서 부딪치는 갈등을 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방법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성인중심적인 인지발달을 강조한 상호작용 유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자간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을 표상능력 발달과 관련된 반응으로 알아보고자, 질문지를 통하여 선호하는 언어 반응을 표시하고, 왜 그러한 언어반응을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 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부모가 지닌 아동발달이나 양육에 관한 신념을 알아보면 더욱더 신뢰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호작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반응하게끔 하였으므로 실제생활에서 관찰되어 나타나는 언어 반응보다는 바람직한 반응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은 실제로 과제를 주고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모자간의 언어적 행동을 관찰하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어머니가 선호하는 언어상호작용에 따라 아동의 인지적 표상능력 발달

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연구하면 매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김경혜(1993). 자녀의 지적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간의 관계.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숙희(1987). 어머니의 언어 형태와 유아의 언어 사고 능력 및 창의성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신옥순(1981). 어머니 兒童간의 상호작용 유형과 兒童의 개념화 양식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ataldo, C. Z. (1977). "A follow-up study of early interven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657-A.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allden, G. (1991). Parents' ideas: The child as project and the child as being. *Children and Society*, 5, no. 1, 334-346.
- Hess, R. D., & Shipman, V. (1965). "Early experience and the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4, 869-886.
- Johnson, J. E. & Martin, C. (1985). Parents' beliefs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s; Effects on cognitive development.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25-50). Hillsdale, N. J.: Erlbaum.
- Laosa, L. M. (1980). Maternal teaching strategies in Chicano and Anglo-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culture and education on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759-765.
- McGillicuddy-De Lisi, A. V.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family constell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teaching strategies" In L. M. Laosa, & I. E. Sigel (Eds.),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pp. 261-300). New York: Plenum Press.
- McGillicuddy-De 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7-24). Hillsdale, N. J.: Erlbau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Newberger, C. M. (1980). The cognitive structure of parenthood: Designing a descriptive measure. In R. L. Selman & R. Yando (Eds.), *Clinical-developmental psychology: New directions for*

- child development*.(pp. 45-67) San Francisco:Jossey-Bass.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New York:Grune & Straton.
- Radin, N. (1971). "Maternal warmth, achievement motivation, and cognitive functions in lower-class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2, 1560-1565.
- Sameroff, A. (1975). Transactional model in early social relations. *Human Development*. 18, 65-79.
- Sameroff, A. J., & Feil, L. A. (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 (pp.83 - 105), Hillsdale, N.J. Earlbau..
- Shipman, V. C. (1973). "*Disadvantaged children and their first school experiences;ETS-Head Start longitudinal study*(Intrim Report)" Vol. 35.
- Sigel. I. E. (1981). "Social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thought:Distancing theory" In I. E. Sigel, D. brodzinsky, & R. Golinkoff (Eds.), *New directions in Piagetian theory and practice*.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ETS RR-80-21)*" Princeton N. J.:Educational Testing Service.
- Sigel, I. E. (1972). The distancing hypothesis revisited:An elaboration of a neo-Piagetian view of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thought. In M. E. Meyer(Ed.), *Cognitive learning. bellingham, Wa*:Western Washington State College Press.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 systems*(pp. 345 - 371) Hillsdale. N. J.:Erlbaum.